

# 오뒷세우스의 복수와 봄 축제\*

강 대 진(전국대 철학과 강사)

【주요어】 질서의 역전, 제의적 구걸, 사자의 방문, 희생, 풍요, 희생양, 신성한 결혼식, 성년식

【요약문】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오뒷세이아』 뒷부분에 나오는 오뒷세우스의 복수 장면이 축제의 틀에 맞춰져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설명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복수의 잔인함과 세부적 기이함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선 이 복수의 배경은 아폴론의 축제다. 그것은 새 달을 축하하는 행사인데, 이번 경우에는 봄이 오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잔치, 운동경기, 춤과 음악같이 명백하게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말고도 축제 관행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묘한 세부들이 있다. 가령 하녀 중 일부가 구혼자들과 정을 통하는 상황은 여러 축제에서 허용되던 성적 방종의 극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인들이 집안을 차지하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집주인이 누더기를 걸치고 문간에 앉아 있는 상황은 사투르날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질서의 역전(逆轉)이다. 한편 오뒷세우스의 구걸은 제의적 구걸의 변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페넬로페가 갑자기 구혼자들 앞에 나타나서 선물을 요구하는 것도 ‘왕’의 제의적 구걸에 ‘여왕’이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 의해 죽은 것으로 간주되던 오뒷세우스가 돌아왔다는 사실과, 테오클뤼메노스가 죽은 자들이 나타난 환상을 보는 것은 축제에 흔히 있는 사자(死者)의 방문에 해당된다.

108명이나 되는 구혼자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것은 제의적 희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숫자는 헤카툰베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혼자 무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 두 명이 방면되는 것은 축제일에 죄수를 풀어주던 전통에 부합된다.

하녀들의 처형장면은 풍요를 위해 인형을 매달던 것과 유사하며, 염소치기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37-A00304)

처형방법은 희생양을 다루던 방식과 유사하고 또 회춘(回春)을 위한 처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염소치기는 늙은 왕 라에르테스의 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곧 이어 라에르테스가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그의 과수원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

복수가 끝난 후 그 방이 춤과 음악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뒷세우스 부부의 재결합이 ‘신성한 결혼식’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 복수는 텔레마코스의 성년식으로 기능하는데, 그가 처음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죽인 것과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무리에 받아들여졌다는 점, 그리고 젊은이의 성장과 연관된 요정들과 아폴론 신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있었던 축제들 중에서는 봄 축제였던 안테스테리아가 이 작품에 나오는 요소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으며, 거기에 앳티케의 신년 축제였던 판아테나이아를 더하면 거의 모든 요소가 등장하게 된다. 안테스테리아는 신년 축제는 아니지만 달력의 변화로 신년 축제가 여러 번 자리를 옮겼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서사시의 시인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오뒷세우스의 귀향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 1. 목표

이 논문의 주된 목표는, 『오뒷세이아』 끝부분에 나오는 오뒷세우스의 복수장면을 봄 축제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길 보기에 다소 기이한 여러 장면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전체가 어떤 일관된 계획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사실 오뒷세우스의 복수가 봄이 도래하는 순간에, 그것도 아폴론의 축제 때에 이뤄진다는 사실은 노먼 오스틴(Norman Austin)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sup>1)</sup>, 그 연구를 부분적으로 이어받은 후속 연구들도 간간이 있어왔다.<sup>2)</sup>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오스틴의 지적이 가진 설명력은 아직

1) N. Austin, *Archery at the Dark of the Moon*, Berkeley 1975, 특히 V장.

2) 예를 들면, L. A. Losada, "Odyssey 21.411: The Swallow's Call", *CP* 80 (1985), 33-34, E. K. Borthwick, "Odysseus and the Return of the Swallow",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오스틴과 다른 연구자들이 그냥 지나친 여러 세부들을 축제와의 연관하에서 해명해보려고 한다.<sup>3)</sup> 아울러 논문 후반에서는 시인이 왜 특별히 아폴론의 봄 축제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치러졌던 여러 축제 중에서 이 복수극에 나타나는 축제 양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 2. 오뒷세우스의 복수의 가혹함과 기이함

2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오뒷세우스는 자기 집이 일단의 젊은이들에게 점령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 집의 주인이 이미 오래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과부’ 페넬로페에게 구혼하면서, 그 집안에 모여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안주인에게 자신들 중 하나를 남편으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한편, 이 집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오뒷세우스는 늙은 거지로 변장한 채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활쏘기 시합을 틈타 이 오만한 구혼자 무리를 모조리 처치하고, 거기에 더하여 구혼자들과 정을 통하고 있던 하녀들과, 불충한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까지 처단한다.

그런데 이 복수극은 너무 가혹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다소간 기이한 인상을 준다. 우선 여기서 죽는 구혼자의 숫자가 문제다. 한 자리에서 108명이나 되는(16권 245-253행) 사람을 처죽이다니,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sup>4)</sup>

---

G&R 35 (1988), 14-22 등.

- 3)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F. I., Zeitlin, "The Argive Festival of Hera and Euripides' *Electra*", *TAPA* 101 (1970), 645-669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엘렉트라」가 아르고스의 헤라 축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엘렉트라의 상태와 그녀의 계략, 이후 사태의 전개가 헤라 여신의 어떤 특성과, 그리고 축제의 어떤 양상과 연관이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 4) A. W. H. Adkins, *Merit and Responsibility*, Oxford 1960, p. 62, H. W. Clarke, *The Art of the Odyssey*, Englewood Cliff, N. J. 1967, p. 20 참고. 한편 S. West는, A. Heubeck, S. West and J. B. Hainsworth, *A Commentary on Homer's Odyssey*, vol. 1, Oxford 1988, p. 56에서, 시인이 이 복수의 정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함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 또 잔인성에 더하여, 과

다른 문제는 이 복수의 방식의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불충한 하녀들과 염소치기를 처형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다가, 거의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한 것은, 방금 대살육이 벌어졌던 공간이 곧 이어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채워진다(23권 141-7행)는 점이다.

이러한 잔인성과 기이한 면모는 우리가 이 복수를 축제와 연관시켜 보면 쉽사리 설명될 수 있다.

### 3. 봄의 도래

이 복수극의 배경은 아폴론의 축제일이다(20권 156행, 20권 276-8행, 21권 258행). 그날은 새 달이 시작되는 날로서, 고대주석이 지적하듯 ‘새 달의 아폴론(Apollon Noumenos)’의 축제일일 것이다.<sup>5)</sup> 그런데 이번 축제는 봄이 다가오는 것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좀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계절은 아직 겨울이다. 그래서 오뒷세우스는 스케리아에 처음 당도했을 때 밤의 서리를 걱정하였고(5권 466-473행), 또 이야기를 지어내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서 두꺼운 외투를 얻어 걸쳤다(14권 457-522행). 밤은 긴 얘기를 나눈 뒤에도 충분히 잘 수 있을 만큼 길고(15권 392행 이하),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아직 불을 지펴두어야 한다(19권 63-4행).

하지만 분위기는 벌써 봄으로 가득하다. 오뒷세우스는 에우뤼마코스에게

---

연 그렇게 적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메가론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사실성의 문제도 남아있다.

- 5) J. Russo, M. F. Fernandez-Galiano and A. Heubeck, *A Commentary on Homer's Odyssey*, vol. 3, Oxford 1992, 20.156 n. 참고.

거지로 변장하고 있던 오뒷세우스는, 이 집의 주인이 Lykabas 안에 돌아오리라고 맹세로써 단언하는데(*toud' autou lykabantos*, 14.161=19.3), 이 Lykabas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은 음력의 두 달 사이 ‘달 없는 밤’이란 뜻으로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N. Austin, 앞 책, pp. 248 ff., J. Russo et al., 같은 책, 19.306 n., W. Burkert, *Homo Necans: the anthropology of ancient Greek sacrificial ritual and myth*, Berkeley 1983, p. 133 참고.

‘날이 길어지는 봄날’ 들판에서 있을 수 있는 농사일 경쟁을 제안하고(18권 367행), 페넬로페는 슬픔에 겨운 자신을 이른 봄의 밤피꼬리에 비유한다(19권 519행). 오뒷세우스가 활시위를 점검할 때, 그것은 마치 제비가 지저귀듯 아름답게 울리고(22권 411행), 나중에 궁지에 몰린 구혼자들은 ‘날 긴 봄철’ 쇠파리에 몰린 가축 떼에 비유된다(22권 299-301행).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아테네 여신의 변신이다. 여신은 제비의 모습을 취하여<sup>6)</sup> 방 안의 서까래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22권 240행). 그러므로 이 축제는 새 달을 축하하는 것인 동시에, 새 봄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sup>7)</sup>

#### 4. 축제적인 면모들

오뒷세우스의 복수극을 축제와 유사한 것으로 만드는 여러 상황 중에, 우리가 축제의 관행이라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질탕한 잔치(1권 90-92행, 1권 245-251행, 14권 90행 이하 등)와 구혼자 사이의 운동경기(4권 625-7행), 춤과 노래(1권 151-2행) 등이다.

하지만 좀더 주목받아야 하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 가령 구혼자들이 하녀들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20권 6-8행)는 점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음탕함’은 여러 종교 축제에서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측면은 토지의 생산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음탕함’은 남성의 것보다는 여성의 것으로 강조되는데, 이 서사시에서 구혼자들의 ‘음행’이 독자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밤중에 하녀들이 밀회하러 나가는 장면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기의 축제들에는 이러한 음탕함이 주로 육설과 상호비방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여기 나온 것

6) 회람 지역에 제비가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고대 저자들은 여러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이른 것은 2월 18일이고, 가장 늦은 것은 2월 23일이다. M. L. West, *Hesiod, Work & Days*, Oxford 1978, 568 n.

7) Wilamowitz는 이 특별한 새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며, Murray는 이것이 메톤 주기를 완결 짓는 날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U. von Wilamowitz, *Der Glaube der Hellenen*, Berlin 1931, vol. 2, p. 29와 Gilbert Murray, *The Rise of the Greek Epic*, Oxford 1949, pp. 210-212 참고.

은 주로 테스모포리아(Thesmophoria) 같은 여성 축제에서 보이던 음탕함의 극단화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녀들의 역할은 할로아(Haloa) 축제나 포세이도니아 축제의 헤타이라이들의 그것과 유사하다.<sup>8)</sup>

다른 주목할 점은 질서의 역전(逆轉)이다. 외부인들이 집안을 차지하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집주인은 누더기를 걸친 채 문간에 앉아있다. 이것은 여러 축제, 예를 들면 로마의 사투르날리아나 도리스 지역의 펠로리아에서 볼 수 있는 관행<sup>9)</sup>을 극단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더 나아가 오뒷세우스의 이런 행동은 제의적 구절의 한 변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비가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던 옛 노래들 중 가장 유명한 것들<sup>11)</sup>이 이러한 제의적 구절과 연관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제비와 함께 돌아온 집주인은, 이제 제비 노래에 부수되는 제의적 구절에 나선 것이다.<sup>12)</sup>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여왕’ 페넬로페다. 이제껏 구혼자들을 피하던 그녀는 갑자기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갑자기 결혼의 희망을 부추기며 구혼 선물을 요구한다(18권 206행 이하). 이것은 아게르모스(Agermos)라는 관행에 제대로 들어맞는 모습이다.<sup>13)</sup> 왕이 ‘거

- 
- 8) N. Robertson, “Poseidon’s Festival at the Winter Solstice”, *CQ* 34(1984), 1-16, 특히 pp.14 f. 참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음탕함은 구혼자들의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녀들의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일은 하녀들이 밀회를 위해 밤 외출을 하는 순간에야 언급된다(20권 6-16행).
- 9) M. P. Nilsson, *Griechische Feste*, Leipzig 1906(2판), pp. 35-40 참고. H. W. Clarke, 앞 책, p. 17 역시 구혼자들의 잔치를 일종의 사투르날리아로 보고 있다.
- 10) 이와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역할의 역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충실한 하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주인인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페가 다소간 무기력하고 혼란된 상황에 빠져 있는 반면에, 에우마이오스나 에우뤼클레이아 같은 충직한 하인들은 여전히 자기 일을 건실하게 돌보고 있는 것이다. N. Austin, 앞 책, pp. 165 ff.
- 11) 로도스 섬의 Chelidonismos (Athenaeus VIII. 360b = 848 L-P)와 사모스 섬의 Eiresione (Vita Homeri Herodotea ch. 33).
- 12) N. Austin, 앞 책, p. 248 참고. 아이들은 제비로 분장하고서, 자신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외치며 이 집 저 집을 다녔는데, 그 노래 내용은 우연히도 이 서사시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제비와 함께) 돌아온 오뒷세우스가 사실은 건장한 영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래의 내용은 라에르테스의 ‘회춘’과도 연결될 것이다.
- 13) “To the promise of blessings there corresponds an almost sacral claim to gifts.” W. Burkert, tr. J. Raffan, *Greek Religion*, Oxford 1985, p. 101.

지'가 된 만큼, 왕비도 거기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오뒷세우스가 모든 사람에 의해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14권 130-8행, 19권 312-4행) 또한 중요하다. 그의 귀향은 말하자면 '죽은 자의 귀환'이다.<sup>14)</sup> 죽은 자로서의 오뒷세우스의 이미지는 그가 스케리아에서 낙엽 더미에 묻혀 잠드는 장면에서 뚜렷하다. 거기서 그는 검은 재 밑에 묻힌 불씨에 비유된다(5권 488-90행). 이것은 그대로 무덤의 이미지다.<sup>15)</sup>

이 작품에서는 오뒷세우스 말고도 다른 죽은 자들이 더 나타나는데, 바로 테오클뤼메노스의 환상 속에서다. 그는 오뒷세우스의 집 벽과 대들보에 피가 덮이고, 현관과 안마당에 죽은 자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을 본다(20권 355-6행).<sup>16)</sup>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축제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드문 일이 아니다.<sup>17)</sup>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24권의 '두 번째 저승담(Nekyia)'이 필요했던 이유일 것이다.<sup>18)</sup> 이제, 말하자면 축제가 끝나고 영혼들이 돌아갈 시간이므로, 그들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복수의 잔인함과 기이함에 대한 해명

한편 이러한 해석은 복수의 잔인함도 설명해줄 수 있다.<sup>19)</sup> 이 복수는

14) M. Eliade, *Le mythe de l' ternel retour*, Paris: Gallimard 1969, p. 87 참고.

15) C. A. van Duzer, *Duality and Structure in the Iliad and Odyssey*, New York 1996, pp. 23 f. 참고.

16) 테오클뤼메노스가 처음 등장할 때 소개가 장황했던 것에 비해 이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상당히 있어왔다.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B. Fenik이 *Studies in the Odyssey*, Wiesbaden 1974, pp. 233 ff.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그 논변들에 덧붙여 지금 이 장면에서 테오클뤼메노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17) 예를 들어, 안테스테리아의 경우, J. E. Harrison,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Cambridge 1922(3판), pp. 43-45와 W. Burkert, *Greek Religion*, p. 238 참고.

18)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종류의 방어 논증은 J. Russo et al., 앞 책, 24.1-204 n.에 있는 A. Heubeck의 논평과, W. B. Stanford, *The Odyssey of Homer*, vol. 2, London 1958(2판), pp. 409 f.를 참고할 것.

일종의 제의적 살해이고, 구혼자들은 신에게 바쳐진 희생이라는 것이다.<sup>20)</sup> 우리는 앞에서 희생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비현실적인 숫자는 사실 헤카툰메(백 마리의 희생제)에 맞춰진 것이다.<sup>21)</sup> 오뒷세우스 일행이 다음날 도피한 것도, 희생동물을 도살한 사람이 마치 죄 지은 듯이 도망치던 관습<sup>22)</sup>과 일치한다. 한편 구혼자의 무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둘(가객과 전령)이 죽음을 면하고 풀려났다는 사실 또한 죄수를 방면하던 축제(예를 들면, 앗티케 지역의 크로니아) 관행에 부합된다.<sup>23)</sup>

하녀들과 염소치기가 당한 징벌의 기이함도, 축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라지거나, 적어도 이해할 만한 것이 된다.

구혼자들과 몰래 정을 통한 하녀들은 나중에 조금 기이한 방법으로 처형되는데, 모두 열두 명의 하녀가 같은 밧줄에 목이 매어달리는 것이다(22권 457행 이하). 그런데 이 밧줄이, 한 끝은 원형 건물의 뿔쪽 지붕 꼭대기에 묶여있고 다른 끝은 현관의 기둥에 묶인 것이라, 그 각도가 너무 가

19) 복수의 잔인함을 정당화해 줄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상황논리일 것이다. 구혼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죽이기를 원했고(1권 251행), 실제로 한 번 시도를 했었다(4권 660-74행, 4권 842행 이하). 또 그들은 오뒷세우스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2권 250-1행). 이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만큼 자신들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는데(2권 245행),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다. 유화책으로 나가기엔 적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강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잔인한 복수가 ‘제우스의 정의’에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 H. Lloyd-Jones, *The Justice of Zeus*, London 1971(2판), pp. 28 ff.와 J. Griffin, *Homer on Life and Death*, Oxford 1980, pp. 164-5 참고.

한편 『오뒷세이아』라는 서사시의 특수성은 다른 쪽에서 이 잔인한 복수를 정당화해준다. 이 서사시는 애초에 민담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청자들은 그러한 잔인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으리라는 점이다. W. Allen Jr., “The Theme of the Suitors in the Odyssey”, *TAPA* 70(1939), 104-124 참고.

20) 비슷한 접근법으로, E. K. Anhalt, “A Bull for Poseidon: The Bull's Bellow in *Odyssey* 21. 46-50”, *CQ* 47(1997), 15-25 참고.

21) 이 숫자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W. Allen Jr., 앞 논문, pp. 114 f. 와 n.33, n. 34 참고.

22) 가령 앗티케의 Buphonia에서 있었던 이런 관습에 대해서는, L. Deubner, *Attische Feste*, Berlin 1956, p. 159 참고.

23) J. E. Harrison, *Themis : a study of the social origins of Greek religion*, London 1963(2판), p. 253 참고.



파르고, 또 열두 명이나 되는 사람의 무계를 건디기엔 아무래도 약해 보인다. 이 매어달린 여인들은 풍요를 불러오기 위해 나무에 매달린 ‘오스킬라(oscilla)’(베르길리우스의 『농경시』 2권 389행)를 연상시키는데<sup>24)</sup>, 이렇게 볼 경우 이 여인들은 일종의 인신희생이 된다.<sup>25)</sup> 이 처형이 실질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데도 세부가 자세히 묘사된 것은, 시인이 인형과 인간 몸뚱이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오스킬라를 매달던 방식에 집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처형 장면에서 사용된 직유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매어달린 이 여인들은, 저녁 무렵 등지로 돌아오다가 덤불에 놓인 그물에 잡히는 새들에 비유되는데(22권 468-70행), 이런 사냥 방식은 성년식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냥 방법, 즉 그물을 이용하여 밤중에 하는 ‘검은 사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처형이, 이제 막 어른이 되는 텔레마코스에게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직유가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옮겨가는 과정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염소치기 멜란티오스가 당한 징벌은 축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그는 귀, 코, 성기, 손발을 잘리게 되고(22권 474-7행), 언제 죽었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내버려지는데<sup>27)</sup>, 이것은 우선 ‘마스칼리스모스(maschalisimos)’라는 관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희생자의 혼령이 나중에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다.<sup>28)</sup> 하지만 우리는 멜란티오스

24) 하녀들의 처형과 관련된 실질적 난점들과 제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22권 441-73행에 대한 M. Fernandez-Galiano의 설명(J. Russo et al., 앞 책, pp. 296 f.)을 볼 것.

25) 여인들이 주로 나무에 매달리던 풍습에 관해서는, J. G. Frazer, *The Golden Bough*, New York: Macmillan 1951 (abridged edition), pp. 410-3 참고.

26) P. Vidal-Naquet, *Le Chasseur Noir*, Paris 1991, pp. 169 ff. 참고.

27) Malcolm Davies, “Odyssey 22.474-7: Murder or Mutilation?”, *CQ* n.s. 44 (1994), pp. 534-53 참고.

28) 예를 들면, R. Merkelbach, *Untersuchung zur Odyssee, Zetemata* ii, Munich 1969(2판), p. 130 n. 2의 해석이 그러하다. 에우뤼스테우스의 시신 훼손에 대한 J. Frazer의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2권 7장 1절 주석(J. Frazer (ed.), *Apollodorus, The Library*, vol. 1, Cambridge MA 1921, p. 279 ff.)도 참고할 것.

가 늙은 ‘왕’ 라에르테스의 낡은 방패를 가지러 갔다가 붙잡혔다는 사실(22권 182-6행)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염소치기는 늙은 왕의 대역인 것이다.<sup>29)</sup> 많은 신년 축제에서 왕들은 먼저 수치를 당하고 그 후에 다시 원래의 존엄함으로 복귀한다.<sup>30)</sup> 멜란티오스는 늙은 왕의 방패를 들고 왕 대신 수치를 당한다. 이제 왕은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한편 멜란티오스의 사지절단은, 메데이아가 펠리아스를 회춘시켜 주겠노라면서 내렸던 처방<sup>31)</sup>과 비슷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라에르테스를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노쇠하고 비참한 상태였는데(24권 226-33행), 잠시 후 그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더 크고 강건한 몸을 지닌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다(24권 365-71행).

멜란티오스의 성기에 가해졌던 모욕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희생양(pharmakos)’과 관련된 제의에 성기를 때리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멜란티오스는 희생양-왕의 대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33)</sup> 24권에 아름답게 번성하는 것으로 그려진 라에르테스의 과수원(24권 206행, 24권 244-7행)은, 물론 하녀들의 ‘처형’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 제의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29) 멜란티오스는 붙잡히기 전에 이미 열두 명 분의 무장을 한꺼번에 나른 바 있다. 그런 그가 단지 방패 하나를 더 가지러 갔다가 붙잡힌 것이다. 짐의 배분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분석론자들은 즐겨 이 부분을 비판하지만, 나는 이런 이상한 배분이 그 낡은 방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30) 예를 들면,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1969(3판), p. 334에 나오는 바빌로니아의 풍습을 참고할 것.

31) 아폴로도로스, 『도서관』, 1.9.26.

32) Hipponax, fr. 5-11 West 참고.

33) “it may even be the king who becomes the outcast”. W. Burkert, *Greek Religion*, p. 84. “it is proper to speak of a king symbolically killed at the end of the year.” W. Burkert, *Homo Necans*, p. 149.

34) 프라트리아(phratria)들의 축제인 아파투리아(Apaturia)와 관련해서, 다른 멜란티오스(또는 멜란토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보이오티아 왕 크산토스와 대결을 벌여 그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대결을 여름(Xanthios, 밝은 자)과 겨울(Melanthios, 어두운 자) 사이의 싸움으로 해석한다. P. Vidal-Naquet, 앞 책, pp. 156 ff. 참고. 이런 해석을 『오뒷세이아』의 멜란티오스에게 적용한다면, 그가 받은 형벌은 겨울을 쫓아내기 위한 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6. 오뒷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신성한 결혼식’

복수가 이루어진 뒤 오뒷세우스는 사건이 있었던 방을 정돈하고 정화하는데, 이것은 신년제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행이니<sup>35)</sup>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다음의 일이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보고 잠자리에 든 후, 텔레마코스와 하인들이 그 방에서 요란스레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뒷세우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는 구혼자들의 가족들이 사실을 알고 복수하러 올지도 모르니 살육을 숨기기 위해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가장하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핑계 뒤에서 ‘부부의 재결합’이라는 의미를 읽어낸다.<sup>36)</sup>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결혼식의 재현이라는 것이다.<sup>37)</sup>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축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결혼식(hieros gamos)’인 것이다. 오뒷세우스가 구혼자들을 모조리 처치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순간, 페넬로페는 어떤 신이 그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23권 63행). 오뒷세우스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테네 여신이 부여한 우아함으로 빛나는 남편을 보고서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혹시 신이 아닐까 두려웠던 것이다.<sup>38)</sup> 말하자면 이제 오뒷세우스는 ‘신성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페넬로페는 그의 신적 측면을 알아본 것이다.<sup>39)</sup>

한편 페넬로페도 이 결혼식을 위해 준비를 갖추는데, 그것은 그녀가 구

35) “The Roman first month was preceded by the somber month of February, the month of purification (*februa* means ‘to purify’),” S. Hornblower and A. Spawforth (ed.),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1996(3판), rites of passage 항목.

36) J. I. Armstrong, “The Marriage Song - *Odyssey* 23”, *TAPA* 89 (1958), 38-43, p. 43 참고.

37) J. Russo et al., 앞 책 중, 23. 141-52 에 대한 A. Heubeck의 주석 참고.

38) W. B. Stanford, 앞 책, 23. 174-6 n. 참고.

39) E., Kearns는 “The Return of Odysseus: A Homeric Theoxeny”, *CQ* n.s. 32 (1982), 2-8, p. 7에서, 오뒷세우스가 ‘신적 정의의 도구’이며,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혼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다. 이 부분에는, 『일리아스』 14권의 ‘제우스 속임(Dios Apatē)’과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sup>40)</sup>, 그 장면에 뒤이어 ‘신성한 결혼식’의 가장 뚜렷한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뒷세이아』의 유혹 장면 뒤에 역시 ‘신성한 결혼식’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결혼식은 유혹을 받았던 구혼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쓰라린’ 것(pikrogamoi, 1권 266행, 17권 137행)이긴 하지만 말이다.<sup>41)</sup> ‘여왕’은, 아르고스 헤라 축제에서 헤라의 여사제가 그러하듯<sup>42)</sup>, 신성한 결혼식을 앞두고 공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 그 수수께끼의 답(땅에 뿌리 박은 올리브 나무 침대 기둥)도 신성한 결혼식과 연관시킬 수 있다. 그 결혼식이 나무 숭배와 연관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sup>43)</sup> 한편 앞에 나온 다른 요소들도 이 결혼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새로이 떠오르는 달은 결혼식을 치르기에 맞춘 때이며<sup>44)</sup>, 새 봄을 상징하는 제비의 노래 역시 ‘신성한 결혼식’과 연관되어 있기<sup>45)</sup> 때문이다.

40) D. B. Levine, “Penelope's Laugh: *Odyssey* 18.163”, *AJP* 104 (1983), 172-178, pp. 174 참고.

41) 첫 번째 저승담에서 아가멤논이 한 말(9권 412-15행)은 집단 살육과 결혼식 잔치를 연결시킨다. 아가멤논의 부하들이 결혼식 잔치의 돼지들처럼 죽었듯, 구혼자들도 이 결혼 잔치를 위해 죽음당한 것이다. H. W. Clarke, 앞 책, p. 12 참고.

42) F. I., Zeitlin, 앞 논문, p. 662; L. S. Farnell, *Cults of the Greek States*, Oxford 1896, 1.187; M. P. Nilsson, *Griechische Feste*, p. 43 등 참고.

43) 고르틴의 제우스와 에우로페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결혼의식을 치렀었다. M. P. Nilsson, *A History of Greek Religion*, New York 1964(2판), p.33, p. 67 참고. 크레테에서 있었던 이런 관행은, 오뒷세우스가 거듭 자신을 크레테 인으로 소개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 섬의 테레아 강가에서 매년 신성한 결혼식이 재연되었기 때문이다.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5권 72장 4절.

44) N. Austin, 앞 책, p. 283 n. 17 참고.

45) E. K. Borthwick, 앞 논문, p. 19.

## 7. 텔레마코스의 성년식

이 ‘축제’는 텔레마코스의 성년식을 위한 계기로도 기능하고 있다. 소년 소녀들의 성년식을 위해 정해진 날은 대개 신들의 축일이었으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46)</sup> 텔레마코스는 2권에서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81행) 미성숙의 모습을 보이지만, 곧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언행을 하며 (21권 344행 이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를 원하고, 활쏘기 시험의 시점에는 거의 거기에 도달한다. (그는 거의 활을 당길 뻔 했었다. 21권 113행 이하) 이제 그는 복수 장면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처음 적들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스파르타 청년들의 크립테이아(krypteia)와 마찬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sup>47)</sup>

텔레마코스가 어른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육지로의 여행인데, 다른 경험들도 있지만 이 여행이 특히 통과 의례에서 중요한 상징인 목욕<sup>48)</sup>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오뒷세우스의 목욕이 신성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라에르테스의 목욕이 늙은 왕의 회춘을 보여주듯, 텔레마코스의 목욕 역시 의미 있는 것으로, 바로 그의 성년식을 준비하였던 것이다.<sup>49)</sup>

그가 살육 뒤에 춤과 노래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그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젊은이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크레테에서, 그리고 로마의 3월 축제에서 춤추는 살리이(Salii)에게서 찾을 수 있다.<sup>50)</sup>

등장인물들의 기도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돼지치기 에우마

46) 가령 아테나이에서는 아파투리아 축제 때 소년들이 프라트리아에 받아들여졌었다. W. Burkert, *Greek Religion*, p. 261, p. 263 참고. 또한 전 회람적 축제인 올림피아 경기 대회도 성년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Oxford Classical Dictionary의 Zeus 항목 (p. 1637 우측 하단) 참고.

47) P. Vidal-Naquet, 앞 책, pp. 161 f.와 pp. 200 ff. 참고.

48) Oxford Classical Dictionary의 initiation 항목 참고.

49) H. W. Clarke는 텔레마코스의 목욕을 일종의 세례(a kind of baptism, 앞 책, p. 36)이라 말하고 있다.

50) J. E. Harrison, *Themis*, pp. 194 ff. 참고.

이오스는 오뒷세우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샘의 요정(Nymphe)들에게 기도를 드리는데(17권 240행), 젊은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이 요정들의 특별한 관심사이다.<sup>51)</sup> 텔레마코스가 아폴론에게 드리는 두 번의 기도(17권 132행, 18권 235행)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아폴론을 부르는 것은 단지 오뒷세우스의 복수의 도구를 예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텔레마코스 자신이 성년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sup>52)</sup>

## 8. 봄 축제라는 배경 선택의 이유

이상에서 우리는 오뒷세우스의 복수를 하나의 축제로 이해할 때, 겉보기에 문제가 있는 듯한 많은 세부들이 쉽사리 설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 복수극은 새 달과 새해<sup>53)</sup>를 축하하고, 아폴론에게 경의를 표하는 축제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 축제에서 신과 같은 남편은 그의 아내를 회복하고, 그들의 결혼식은 춤과 노래로 축하된다. 이 행사를 계기로 그들의 아들은 성년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는다. 구혼자들은 희생물로서 죽음을 당하고, 사자(死者)의 행진을 보여준다. 하녀들은 한동안 음란하게 즐기지만 결국 풍요를 위해 교수(絞首)되고, 그 결과는 번성하는 과수원으로 보여진다. 불충한 염소치기는 늙은 왕 대신 수치를 당하고, 사지가 절단된다. 그러자 ‘왕’은 예전의 힘과 젊음을 되찾는다.

그러면 시인은 왜 봄 축제를 자기 서사시의 중심이라 할 사건의 배경으로 사용한 것일까?

51) R. S. Caldwell, *Hesiod's Theogon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ive Essay*, Cambridge MA 1987, p.49, 346-348 n. 참고. 에우리피데스 『엘렉트라』 625행 이하에서 아이기스토스가 요정들에게 희생제를 드린 것도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다. F. I. Zeitlin, 앞 논문, p. 664 n. 55 참고.

52) 성년식과 연관된 아폴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W. Burkert, *Greek Religion*, pp. 144 f.와, 같은 저자의 “Apellai und Apollon”, *RhM* 118 (1975), 1-21 참고. 이 서사시에서 봄의 분위기를 이워주는 밤피꼬리와 제비의 노래는 젊은이의 신 아폴론이 도착할 때도 울려 퍼졌다고 한다(Alcaeus fr. 307 L-P.).

53) “새해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시점이 있는데, 하나는 봄이고 다른 하나는 곡물을 수확한 후이다.” W. Burkert, *Greek Religion*, p. 228.

아마도 한 가지 설명은 『오뒷세이아』를 이루는 민담적 요소 중 하나, 즉 ‘집 떠난 이의 귀향’이라는 모티프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 귀향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약혼자가 결혼하려는 순간이나, 부인이 재혼하려는 순간에 이뤄진다.<sup>54)</sup> 그 순간은 사태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분기점이다. 한데 이것은 해바뀔의 순간이 갖는 성질이기도 하다. 『오뒷세이아』가 민담에 기초를 두고, 그래서 ‘자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구별하지 않는’ 원초적 심성<sup>55)</sup>을 반영한다면, 이 두 사건의 일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설명은 텔레마코스의 성장과 연관된 것이다. 텔레마코스가 나중에 야 도입된 인물이라는 주장도 종종 있어왔지만, 위에 말한 ‘집 떠난 이의 귀향’에서 아들이 어른이 되는 시점이 아내가 기다려야 할 최종 기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들의 존재가 오히려 민담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6)</sup> 어쨌든 현재대로의 『오뒷세이아』는 텔레마코스를 이야기의 중심 흐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그가 어른이 되는 시점, 즉 통과의례를 지낼 시점이 중요해진다. 해가 바뀌는 순간은 자주 그러한 통과의례의 기회로 이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어쩌서 아폴론의 축제인가? 앞의 논의에서 이미 많은 것이 나왔다. 그는 새해의 시작과 겹칠 수 있는 새 달의 신이고, 오뒷세우스의 복수 도구인 활의 신이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신이며, 어쩌면 오뒷세우스와 자신을 동일시했을지도 모르는<sup>57)</sup> 시인의 신이기도 하다. 한편 아폴론은 제우스, 아테네와 더불어 부계적 질서를 지키는 세 신 중 하나이기도 하다.<sup>58)</sup> 자신의 혈통조차 확신하지 못하는(1권 215-6행) 젊은이를 여행을 통

54) 가령 U. Hölscher, *Die Odyssee: Epos zwischen Märchen und Roman*, München, 1990(3판), pp. 49 ff. 참고.

55) J. Harrison, *Themis*, pp. 534 f. 참고.

56) U. Hölscher, “Penelope and the Suitors”, in: S. L. Schein, (ed.), *Reading the Odyssey: Selected Interpretive Essays*, Princeton, 1996, pp. 133-140 중 p. 140 참고.

57) N. Austin, 앞 책, p. 249. 시인이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다른 사례로는, R. V. Albis, *Poet and Audience in the Argonautica of Apollonius*, New York, 1996, pp. 28 ff. 참고. 실제로 알키노오스 왕은 오뒷세우스를 가객에 비긴다(11권 368행).

해 성장시키고 아버지 곁에 세운 시인이란, 그리고 영웅의 귀환을 아버지가 죽음의 질병에서 되살아나는 것에 비유(5권 394행 이하)한 시인이란 이 남성신을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sup>59)</sup>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작은 실마리들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이 오뒷세우스의 귀환에 부여한 의미일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오래 전에 사라져, 흔적도 없는 실종 상태에서, 죽음 같은 망각을 뚫고 갑자기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영웅이, 무례배들을 벌하고 무너져가던 집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은 그 자체로서 축제라 할 만하지 않은가! 더구나 그가, 죽음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온갖 단계의 질서, 또는 무질서들을 겪고 온 사람, 무방향의 혼돈을 겪고 무시간적 영원을 거부하고, 천체의 운행에 따라 시공간이 질서 지워진 세계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의 귀환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간의 시작에 맞춰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9. 실제 축제 중의 유사 사례

혹시 실제로 행해졌던 단일한 축제 중에 위에서 언급된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축제들 가운데서, 위에서 구성해본 ‘가상적’ 축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그런 축제가 존재하기란 어려울 듯하다. 위의 ‘가상적인’ 축제를 이루는 요소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서 발견될 뿐이다. 잘 알려진 축제들 중에서 이 논문에 그려지는 축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아테나이의 안테스테리아이다. 그것은 봄 축제고, 죽은 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축제이며, ‘신성한 결혼식’을 수반하는 것이다.<sup>60)</sup> 우리는 또 이

58) J. Harrison, *Themis*, pp. 500 ff.

59) 물론 시인이 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N. Felson-Rubin, “Penelope’s Perspective: Character from Plot”, in: S. L. Schein, (ed.), 앞 책, pp. 163-183 참고.

60) W. Burkert, *Homo Necans*, p. 216 참고.



축제에서 노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죄수를 방면하는 관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61)</sup> 따라서 아쉬운 대로 이것을 우리의 가상적 축제의 유사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즉 이 안테스테리아가 신년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앳티케 달력에서는 한여름(7월-8월)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테나이에서 신년 축제는 판아테나이아였고, 그 축제 앞에는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감을 축하하는 일련의 축제들이 있었다.<sup>62)</sup> 하지만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몇몇 학자들이 믿고 있듯이, 인간지식의 발달과 더불어 한 해의 시작은 다른 계절로 옮겨갔고, 축제들도 옮겨졌기 때문이다. 앳티케의 신년 축제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F. M. 콘포드의 다음과 같은 발언<sup>63)</sup>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때 번 새로운 단계가 진전될 때, 과거의 축제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것은 한 해의 다른 계절로 옮겨져서 수용된다. 또 어떤 것들은 퇴화된 형태로, 즉 명절의 형태로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서로 다른 신들에게 결부된, 중복된 축제들과, 내용상 명백히 동일한 의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10. 결어

우리는 위에서 오뒷세우스의 복수 장면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축제의 여러 면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여기서 다뤄진 구절들은 대개 분석론자들에 의해 공격 받는 부분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오뒷세이아』가 두 시인의 손을 거쳤으며, 두 번

61) J. E. Harrison, *Themis*, p. 253 참고.

62) 여기서 우리는 질서의 역전, 그리고 왕의 일시적 퇴위 관행을 찾아 볼 수 있다. W. Burkert, *Homo Necans*, pp. 135 ff. 참고.

63) F. M. Cornford, “The Origin of the Olympic Games”, in: J. E. Harrison, *Themis*, 212-259, p. 238.

째 시인이 덧붙인 부분이 모순을 일으키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고 주장한다. 가령 이 논문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었던, 제비 모습의 아테네라든지, 멜란티오스 같은 인물의 존재와 행태도 두 번째 시인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비판 받는다.<sup>64)</sup> 하지만 적어도 이 논문에서 검토된 바에 의하면 문제되는 부분들이, 설사 두 번째 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색하다거나 모순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필자로서는 ‘호메로스 문제’라는, 거의 해결될 길 없어 보이는 해 묵은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별로 없지만, 굳이 편을 나누자면 단일론 쪽으로 생각이 기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서사시의 여러 세부들이 단일한 계획을 따르는 듯 서로 호응하여 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

64) 최근의 저작 중 이런 입장은, J. Russo, M. F. Fernandez-Galiano and A. Heubeck, *A Commentary on Homer's Odyssey*, vol. 3, Oxford 1992 중, M. F. Fernandez-Galiano가 쓴 21-22권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권의 introduction을 볼 것.

## 참고문헌

- Adkins, A. W. H., *Merit and Responsibility*, Chicago and London, 1960.
- Albis, R. V., *Poet and Audience in the Argonautica of Apollonius*, New York, 1996.
- Allen Jr., W., "The Theme of the Suitors in the *Odyssey*", *TAPA* 70 (1939), 104-124.
- Anhalt, E. K., "A Bull for Poseidon: The Bull's Bellow in *Odyssey* 21. 46-50", *CQ* n.s. 47 (1997), 15-25.
- Armstrong, J. I., "The Marriage Song - *Odyssey* 23", *TAPA* 89 (1958), 38-43.
- Austin, N., *Archery at the Dark of the Moon*, Berkeley, 1975.
- Borthwick, E. K., "Odysseus and the Return of the Swallow", *G&R* 35 (1988), 14-22.
- Burkert, W., "Apellai und Apollon", *RhM* 118 (1975), 1-21.
- Burkert, W., *Homo Necans: the anthropology of ancient Greek sacrificial ritual and myth*, Berkeley, 1983.
- Burkert, W., *Greek Religion*, Oxford, 1985.
- Caldwell, R. S., *Hesiod's Theogony: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ive Essay*, Cambridge MA, 1987.
- Clarke, H. W., *The Art of the Odyssey*, Englewood Cliff NJ, 1967.
- Cornford, F. M., "The Origin of the Olympic Games", in: J. E. Harrison, *Themis*, 212-259.
- Davies, M., "Odyssey 22.474-7: Murder or Mutilation?", *CQ* n.s. 44 (1994), 534-536.
- Deubner, L., *Attische Feste*, Berlin, 1956.
- Duzer, C. A. van, *Duality and Structure in the Iliad and Odyssey*, New York, 1996.
- Eliade, M., *Le mythe de l' éternel retour*, Paris: Gallimard, 1969.
- Farnell, L. S., *Cults of the Greek States*, Oxford, 1896.

- Felson-Rubin, N., "Penelope's Perspective: Character from Plot", in: S. L. Schein, (ed.), *Reading the Odyssey: Selected Interpretive Essays*, Princeton, 1996, 163-183.
- Fenik, B., *Studies in the Odyssey*, Wiesbaden, 1974.
- Frazer, J. G., (ed.), *Apollodorus, The Library*, vol. 1, Cambridge MA, 1921.
- Frazer, J. G., *The Golden Bough*, New York: Macmillan, 1951 (abridged edition).
- Griffin, J., *Homer on Life and Death*, Oxford, 1980.
- Harrison, J. 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Greek Religion*, Cambridge, 1922<sup>3</sup>.
- Harrison, J. E., *Themis : a study of the social origins of Greek religion*, London, 1963<sup>2</sup>.
- Heubeck, A., S. West and J. B. Hainsworth, *A Commentary on Homer's Odyssey*, vol. 1, Oxford, 1988.
- Hölscher, U., *Die Odyssee: Epos zwischen Märchen und Roman*, München, 1990<sup>3</sup>.
- Hölscher, U., "Penelope and the Suitors", in: S. L. Schein, (ed.), *Reading the Odyssey: Selected Interpretive Essays*, Princeton, 1996, 133-140
- Hornblower, S. and A. Spawforth (ed.),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1996<sup>3</sup>.
- Kearns, E., "The Return of Odysseus: A Homeric Theoxeny", *CQ* n.s. 32 (1982), 2-8.
- Levine, D. B., "Penelope's Laugh: *Odyssey* 18.163", *AJP* 104 (1983), 172-178.
- Losada, L. A., "Odyssey 21.411: The Swallow's Call", *CP* 80 (1985), 33-34
- Lloyd-Jones, H., *The Justice of Zeus*, London, 1971<sup>2</sup>.
- Merkelbach, R., *Untersuchung zur Odyssee, Zetemata* ii, Munich, 1969<sup>2</sup>.

- Murray, G., *The Rise of the Greek Epic*, Oxford, 1949
- Nilsson, M. P., *Griechische Feste von religiöser Bedeutung mit Ausschluss der attischen*, Leipzig, 1906<sup>2</sup>.
- Nilsson, M. P., *A History of Greek Religion*, New York, 1964<sup>2</sup>.
- Pritchard, J. B.,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1969<sup>3</sup>.
- Robertson, N., "Poseidon's Festival at the Winter Solstice", *CQ* n.s. 34 (1984), 1-16.
- Russo, J., M. F. Fernandez-Galiano and A. Heubeck, *A Commentary on Homer's Odyssey*, vol. 3, Oxford, 1992.
- Stanford, W. B., *The Odyssey of Homer*, vol. 2, London, 1958<sup>2</sup>.
- Vidal-Naquet, P., *Le Chasseur Noir*, Paris, 1991,
- West, M. L., *Hesiod. Work & Days*, Oxford, 1978.
- Wilamowitz, U. von, *Der Glaube der Hellenen*, Berlin, 1931.
- Zeitlin, F. I., "The Argive Festival of Hera and Euripides' *Electra*", *TAPA* 101 (1970), 645-669.

## 【Abstract】

## The Vengeance of Odysseus and Spring Festival

Kang, Dae-Ji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eaning of some puzzling scenes at the end of the *Odyssey* on the assumption that the features of Odysseus' vengeance correspond to those of a festival.

The background of this vengeance is a festival for Apollo of New Moon. This time the monthly festival gets special meaning because it celebrates the coming of the spring.

Apart from the apparent features of a festival, like the magnificent banquets, the athlete contest, song and dance, there are some aspects that deserve more attention: the lewdness of the maid-slave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extreme case of the sexual license found often in festivals. The reversal of order, which represents a momentary disorder before the restoration of order. The beggary of Odysseus, which might be a variation of ritual begging. The appearance of the dead, including Odysseus the 'dead man' and the crowd in Theoklymenos' vision.

The slaughter of the suitors is a kind of ritual murder. Their number is suitable for *hekatombe* (One Hundred Sacrifices). The maid-slaves are hanged like *oscilla* (masks) as a kind of human sacrifice certifying fertility. The mutilated goatherd Melanthios is the substitute of the *pharmakos*-king.

The purification of the hall is a practice often found in festivals related to the transition from Old to New Year. The clamorous song and dance in the hall celebrates a *hieros gamos* (sacred marriage).

The vengeance is used as an occasion for the initiation of Telemachos. He joins in a battle for the first time and comes to kill the enemies. His participation in the singing and dancing makes clear his being accepted into

the adult group.

Among the well-known festivals, what is most similar to the imaginary festival above discussed is the Anthesteria of Athens.

This 'festival' of *Odyssey* marks a new spring, and possibly a new year, or even a new age.

Key words: reversal of order, ritual begging, appearance of the dead, sacrifice, fertility, pharmakos, sacred marriage, initiation